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㉓

(구원사화)

■ 一沙權正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울진)



(지나호에 이어)

무릇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은 범이나 표범에게는 다행한 것이 되지만 소와 사슴에게는 불행한 것이며, 머리의 뿔은 소나 사슴에게는 다행이지만 범이나 표범에게는 화근이 된다.

고양이나 족제비의 날렵 사냥 솜씨가 하나의 재주라면, 쥐나 참새의 민첩함 또한 하나의 재주이다. 매와 송골매의 공격은 물론 피하기가 어렵지만, 우거진 수풀이나 깊은 구멍은 새와 쥐를 숨겨 주곤 한다. 기러기와 오리는 본디 날카로운 발톱이나 예리한 부리는 없으나, 혹은 높이 날갯짓하며 멀리 날아올라 적을 피하고, 혹은 재빨리 날거나 연못 속에 잠겨서 화를 벗어나곤 한다. 황새와 학의 부리가 길고도 날카로움을 자랑한다면, 뱀은 굴에 숨고, 지렁이는 진흙 속에 잠겨서, 개는 구멍으로 들어가고, 조개는 갑옷으로 가리니, 이는 곧 매·송골매·황새·학 등의 무리에게 각기 한 가지의 재주가 있음이 행운이듯이, 새·쥐·기러기·오리·뱀·지렁이·개·조개 등의 종류에게도 역시 각기 한 가지의 재주가 있어 행운인 것이다.

또한 뱀이 몸을 감자기 돌리는 것에 둔한 것은 곧 개구리나 쥐에게는 행운이요, 송냥이나 이리에게 나무를 타는 능력이 없음은 원숭이에게 행운이 된다. 끊어지고도 능히 살 수 있는 것은 지렁이와 거머리의 행운이요, 온몸에 독이 있는 뱀을 지닌 것은 여를 벌레의 행운이다. 벌과 전갈이 침을 쏘고 두꺼비가 액을 토하는 것과, 거북이와 자리의 울퉁민 머리와 도마뱀의 부른 꼬리 등은 모두 먹이를 찾다니면서 적의 해꾸지를 막고 도망하여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한 가지의 재주가 곧 한 가지의 행운이 되지 않음이 없다.

그러하기에 범과 표범이 강하기는 하지만 구르고 쫓는 수고와 주리고 목마른 고통을 면치 못하며, 소와 사슴은 연약하지

하며 반드시 움직이는 물건이라고는 남기지 않을 것이니, 하늘 아래 목숨을 보존하는 생물이 또다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조물주의 뜻에는 본디 편벽됨이 없는데 어찌 한 세상의 생물을 모두 몰아사자의 탐욕스런 욕심만 채워 주는 나쁜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다는 한치의 작은 물고기도 받아들이고, 산에는 손가락 만한 작은 참새도 있으며, 나무에는 이슬을 먹고사는 매미가 서식하고, 진흙 속에는 눈이 없는 지렁이가 숨어 있으니, 꿈틀거리는 하잘것없는 벌레 또한 하늘의 큰 은혜를 같이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간에 어찌 권세를 도거리하고 부귀를 독점하는 집안과, 패권을 차지하여 외곽으로 강하긴 한 나라가 있을 수 있겠는가! 때문에 속담에 '말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패하지 않는 집안은 없다' 하였으니, 내가 그러한 까닭에 백성과 사물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가정과 나라의 흥망이 되풀이되어 무상함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므로, 어찌 눈앞의 영고성쇠에 마음이 흔들리겠는가!

天人之際, 覆育之化, 大矣, 未遑長說. 地人之際, 載安之德, 厚矣, 其陶冶感戴之功, 甚焉. 是以國相都 民擇里, 未嘗敢忽. 夫相都 擇里者, 欲其選地理風氣之適善也. 蓋定都占居, 固不可忽也. 至如國國全族之於地理風氣, 其休戚之係甚重, 此不敢少忽也.

하늘은 사람에게 있어 감싸 기르는 조화가 위대함에 장황하게 말하지는 못할 바이며, 땅은 사람에게 있어 실어 편안케 하는 공덕이 두터우니 인재를 기르고 교화에 몰들게 하는 공적은 실로 크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 도읍을 선택하고 백성들이 동리를 고르는데 있어서 감히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릇 도읍을 택하고 동리를 고르는데는 땅의 이치와 바람의 기운이 적합하고 좋은 곳을 고르고자 하는 것이니, 도읍을 정하고 살 곳을 결정하는 것은 진실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온 나라와 온 가쪽이 땅의 이치와 바람의 기운에 따라 기쁨과 근심의 연루됨이 매우 심하니, 이를 감히 가벼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남북조 시대에 송(宋)의 명제(明帝) 유육(劉彧)은 자기 조카 유자업(劉子業)을 쫓아내고 황제에 오른 사람이다. 유육의 아버지 문제(文帝)가 죽은 후 황제에 오른 어린 유자업은 장성한 삼촌 유육 등이 자기의 자리를 훔 빼앗을까 두려워서 삼촌들을 못살게 굴며 죽이려고 까지 하였다.

이러한 조카를 먼저 죽이고 황제에 올랐으니 여기까지는 사실 누가 잘하고 잘 못한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유육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내쫓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 오른 다음에도 쫓겨나 죽은 유자업의 형제들이 삼촌들이 부당하게 황제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여 군사를 일으킨 일이 있으니 결국의 숙질(淑戚) 일의 권력싸움이였다.

하야간 그리고 나면 좀 편안하게 황제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세상일이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황제인 명제 유육도 병이 들었고 병석에 눕자 또 황제 자리 걱정이였다. 그를 도왔던 동생 유휴인이 성격이 괘괄하여 때로는 그의 말을 잘 들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대도 두면 자기의 어린 아들을 내치고 동생 유휴인이 황제 자리에 오를 것 같았다. 이처럼 불안해 지자 방법을 써서 그를 죽였다.

황제가 그 동생을 이렇듯 죽이자 다른 동생인 유휴인은 불안해하였다. 언제 형님이 황제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름까 황제 유육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만약에 유휴인이 황제에 오르면 불이익을 볼 사함을 불렀다. 그리고 넌지시 계획을 짜게 하였다.

그러나 밖에서 본다면 명제가 동생 유휴인을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황제와 동생 유휴인은 평

권력이 뭐라고 동생을 죽이는가?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심화고전연구소 소장)

소에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 유육이 죽으면 태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유휴인이 뒤를 잇거나 적어도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후에 유휴인에게 위탁하려고 마음먹었다.

명제 유육의 병이 위독해지자 대부분의 관원들이 유휴인에게 이른 바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유휴인이 거처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혹 당직을 서기 때문에 유휴인에게 갈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유휴인에게 눈도장을 못 찍은 것이 후에 화가 되지 않을까 발발 될 지경이었다.

이 말이 알아누은 황제 유육에게 보고되었다. 이 보고를 들은 황제 유육은 동생 유휴인에게 조사를 내리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유휴인이 궁궐로 들어가려고 하였더니, 오늘 저녁은 상서하성(尙書下省)에서 머물러 숙박하고, 날이 밝으면 일찍 오도록 하라고 다시 말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약을 싸가지고 가서 유휴인에게 먹게 하였다. 계획을 실천한 것이다.

권력을 둔 싸움이란 원래 그런 것이지만 동생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유인한 것이다. 사약을 받은 유휴인은 화가 났다. 형님 명제가 황제에 오르게 된 것은 자기가 도왔던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악담을 퍼 부었다. 과거에 5대 황제인 효무제 유준(劉駿)이 동생들을 죽이었는데, 그 후사가 없게 되었다고 한 말을 거론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형제들을 죽이면서 황제가 되는 송(宋)나라가 오래 갈 수 없다고.

유휴인이 악담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명제 유육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유욱(劉昱)이 황제에 오르긴 했지만 쫓겨났다. 이를 역사에서는 후폐제(後廢帝)라



고 부르는데, 그 후 곧 나라는 곧 망하였다.

명제가 저지를 죄를 후손이 받은 것일까? 생각해 보면 황제의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조카를 죽이고 동생을 죽였을까? 그러한 자기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말인가? 결국 집안 싸움하다가 나라를 망쳤다. 그리하여 역사가 심약은 유육의 아버지 태조가 나라를 큰 뜻을 가졌지만 집안을 융성시키는 도는 부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역사기행

경기전(慶基殿)과 전주사고(全州史庫)

■ 향촌 권오창 (본원 자원위원)



사고는 조선조 역대왕의 실록을 주로 보존하고 왕실관계의 주요 전적을 함께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한 사각(史閣)이다. 세종 때에 춘추관에 의하여 충주, 청주, 전주 3사고를 설치하여 실록 서책을 분장하였으나 임진왜란 때에 전주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는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다시 4부를 증간하여 태백산, 오대산, 묘향산의 각 사고와 춘추관에 분장하고 구분은 마니산 사고에 수장하였으나 그후 묘향산 사고는 폐지하고 적상산에 사고를 설치하는 한편 마니산 정족산에 이전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오대산 사고본은 동경 대학으로 가져가서 1923년 지진으로 소실되었으나 개인이 대출 소장되었던 몇권만이 해방 후에 한국에 문화재반환 권으로 돌아왔다. 그후 태백산 정족산 사고본은 서울대에 보관되었고 적상산 사고본은 구항실 문고에 두었다.

임진왜란 때에 유일하게 전주사고의 보존 서적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피난을 시켜서 왕조 역사의 실존을 모면하게 되었고 조선왕조의 기록이 영구히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인류기록 문화유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바 있다. 전주사고는 1439년(세종 21년)에 전주에 설치하고 실록을 비롯한 국가 중요서적을 보관토록 하였다. 현존 사고 건물은 1991년 새로이 구 건물과 똑같은 규모와

양식으로 복원 건축되었다. 2층 목조 건물에는 전주사고에 대한 역사전시물과 사진 그리고 피난시 이동경로와 모형형태 등이 유리칸 안에 보기 쉽게 진열되어 있다.

또한 실록 집필과정과 관한 관계연명 그리고 제작과정 영인표본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실록 봉안시 봉안행렬도를 그린 것을 볼 수 있다.

세종 27년에 전주사고에는 태조실록 15권, 정종실록 6권, 태종실록 36권을 보관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사고의 보존 서적은 1593년 7월 내장산에 있는 용굴로 이장하여 보관하였다. 이장 과정은 인력을 선발 동원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중간 목적지까지 수십명의 인원이 짊어지고 옮기고 다시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받아서 어느 목적지까지 릴레이식 전달을 하였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일도 많이 걸렸다. 정을 내장산 용굴에 피난시킨 보존 서적은 영변 묘향산으로 다시 옮겨졌다. 이 실록서적들은 임진왜란이 끝나자 이를 다시 마니산 사고를 이장 보관하였다. 이곳에 보관 중이었던 실록 원본을 다시

4부로 영인하여 다른 사고에 각각 비치토록 한 것은 앞서 기술하였다. 인조 때에는 이괄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괄의 난을 계기로 마니산 사고에 소장된 실록 서책을 강화도 정족산에 보관하였다.

전주사고는 경기전 경내 담벼락 사이에 두고 건축된 건물이다. 이는 조선왕조의 건국 후 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라고 하여 전주에 경기전을 건립하고 그 옆에 전주사고를 설치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경기전 정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일자 와가 목조건물로 전면에만 칸의 각을 덧붙여 지어 정자각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곳은 1442년(세종 24년)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진전(眞殿)을 두고 경기전이라고 한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평상시 집무복인 익선관과 청색의 곤룡포를 입었으며 백옥띠와 흑화를 착용한 용상에 앉은 전신상이다. 전주는 태조의 분향이며 그의 선대들이 살았던 곳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최초로 1410년(태종 10년)에 태조의 어진을 전주에 봉안하였으며 1872년 구분이 남아 이를 박기훈, 조종목, 백은배 등 8인의 화가가 새로 모사하여 경기전에 모셨다.

경기전은 태종, 세종, 선조, 광해군, 숙종, 영조, 고종 년대까지 여러 경로를 거쳐 내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전 후편에 여진 박물관을 개관하여 여진 봉안관련 흑장계 제례상 가마 등 유물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현존하는 초상화의 어진은 태조, 영조, 철종 어진뿐이다. 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세종과 정조의 어진은 실제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것으로 국가에서 공인한 표준 영정이고 고종과 순종의 어진은 사진을 보고 모사한 것이다.

경기전 경내에는 전주사고뿐만 아니라 1771년(영조 47년)에 건립한 조경묘가 있다. 조경묘는 전주이씨 시조 이한과 시조 비인 경주김씨의 위패를 봉안한 왕실의 시조 사당이다. 그리고 예종대왕의 태를 묻은 곳으로 태실비는 경기전 우측에 세워져 있다. 비는 거북모양의 받침돌 위에 비신을 세우고 머리돌인 비갓에는 용무늬가 조각되어있다.

경기전 정문 앞에는 하마비가 있는데 경기전 하마비는 일반적인 하마비는 비석만 세워져 있으나 이곳의 하마비는 암수 두 마리의 동물이 비좌대 앞면에 두상만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기전 주변에는 불만한 유적과 명소가 많이 있다. 우선 경

기전 진입로 도로 입구에는 전통성당이 있는데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이고 스테인 드글라스는 순교자를 채색화 한 것이다. 전통성당은 사적 제 37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 천주교순교자 묘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동정부부일가의 묘소가 순교자묘역(지방기념물 제8호)에 있다는 것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경기전 정문 원면 민속가게를 100m 정도 따라가면 전주향교가 있다. 전주향교는 규모가 크고 현존하는 향교로서는 보존이 아주 잘된 향교이다. 경내에는 은행나무 교목이 5그루가 있으며 몇 년 전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촬영한 명소가 되어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다. 경기전 정문 오른쪽에는 풍남문(보물 제308호)이 100m 거리에 있다. 전주성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있었으나 4대문 중 하나인 풍남문만 남아있다. 이는 전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소재지였던 전주를 둘러싼 성곽의 일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풍남이란 중국의 한나라 고조가 태어난 곳 남쪽을 가리킨다.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풍패에 비유한 것이다. 성문 위에 세운 누각 위층과 기둥이 아래층의 기둥과 하나로 이어져 연결된 점이 특이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객사(보물 제583호)의 풍패지판은 임금에게 망궤례를 행하던 곳으로서 역시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상징한다.

전주는 역사적으로 건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이며 조선왕조를 꽃피운 역사와 전통의 중심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전주를 둘러보는 시간이 남는다면 고려말 이성계가 전라도지방의 왜구를 정벌하고 개경으로 돌아갈 때에 전주영야를 바라보며 대풍가를 부르며 아원을 배풀었던 오목대를 가보고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전통 한옥마을을 가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주는 독특하고 정갈한 한정식, 전통생활양식의 한옥, 왕실의 진상품이었던 한지, 선비사회의 풍류였던 아름다운 가락과 노동요, 민요, 산조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주를 가는 철도교통편은 서울에서 용산-전주간 KTX 등 1일 5회 무궁화호 등 1일 11회가 운행되고 서울 강남에서 서울-전주간 10분 간격으로 고속버스가 있으며, 동서울버스터미널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전주시내에는 세티투어가 있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은 편이하다. <끝>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㉓

■ 김 영 현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지나호에 이어)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된 이세환(李世環, 1541~1603)

광주 북구 운암동 출신으로 자는 백헌(伯獻), 호는 추암(秋巖), 본관은 광산이다. 대사성 초(樞)의 후예이며, 처사 몽린(夢麟)의 아들이다. 1590년 무과에 등제하여 훈원된 정교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권율 막하로 들어가 행주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호남절의록』에 이치전투 참전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이 전투에도 참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유재란 때는 팔랑지에서 제종제 완군과 함께 적과 싸워 적장의 목을 베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탈취한 왜검이 가보로 전해지고 있다.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후손은 광주 북구 오룡동 치촌 마을 등지거 거주하고 있다.

행주대첩비에 이름을 올린 이완근(李完根, 1545~1615)

광주 북구 운암동 출신이다. 자는 백인(伯仁), 호는 서암(瑞菴), 본관은 광산이다. 대사성 초(樞)의 후예이며, 참봉 춘년(春年)의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재종형 세환과 함께 광주목사인 권율을 찾아가 막하가 되어 주부(主簿)의 벼슬을 제수받았다. 이후 이치전투와 행주전투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율은 장검을 내리고 격려하였으며, 계속적의 토벌에 앞장서자 조정에서는 어모장군 지세포 만호에 제수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남원과 함양의 경계인 팔랑지에 재종형인 세환 등과 함께호남을 침범하는 적을 막고, 고금도 전투에서 대승을 세움에 따라 호계도(虎鏡圖)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행주대첩비’ 비문에 새겨진 여덟 명 중 한 명으로 선무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후손은 광주 북구 운암동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완근과 함께 ‘행주대첩비’에 이름을 올린 이충립(李忠立, 1566~1518)

광주 광산구 등림동 방해 마을 출신으로 본관은 함평이다. 병사 종우(從愚)의 후예이며, 역종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 경력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완근·이세환 등과 함께 권을 막하에 들어가 용진분투 끝에 많은 적을 참살하였다. 『호남절의록』 등에 참전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행주대첩비』에 막하유사로 새겨져 권을 막하에서 이치·행주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1597년 이순신 막하로 들어가 노랑전투에서 공을 세워 명천부사로 임명되었다.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후손은 전남 담양군 수북면 주령리, 순천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치승첩서’를 왕에게 전달한 정충선(鄭忠臣, 1576~1636)

광주의 증신도로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는 그의 군호를 따서 명명되었다.

그는 광주 남구 서동(옛 광주 향교동) 출신이다.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晩雲), 본관은 하동이지만 본관하여 금성을 관향으로 삼았다. 고려 때 명장 지(地) 장군의 9세손이며 금천군 윤(倫)의 둘째아들이다.

당시 약관 17세의 정병으로서 광주목에 소속되어 인장을 관리하는 지인(知印·通引)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 권율의 휘하로 이치전투에 참전하였다. 권율이 징계를 행재소에 전달할 사람을 뽑을 때 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7세의어린 그가 청하여 왜군으로 가득한 길을 뚫고의 주황재소에 도착하여 왕에게승첩서를 전달하는 공을 세웠다.

이후 병조판서 이항복이 그에게 사서를 가르쳤는데 머리가 총명하여 아들같이 사랑하였다. 이해 가을에 행재소에서 실시하는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다음호에 계속>